

고춧값 맵다 매워...채소 먹기 겁난다 겁나

고깃집 쌈채소에 고추 달걀 1개...추가 안되고 셀프바서도 실종 고추 10kg 12만원 넘어 '전년의 두배'...오이·양파·대파도 경총

“고추 비싸서 못 드려요...” 직장인 김모(32)씨는 지난 11일 주말을 맞아 식당을 찾았다가 식당 주인으로부터 귀를 의심할 만한 얘기를 들었다. 김씨는 일행들과 제육볶음 3인분을 시켜 먹던 중 청양고추가 들어 나자 식당 주인에게 더 줄 것을 요구했는데 식당 주인이 “더 이상 줄 수가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는 “식당 주인이 요즘 고추가 비싸 주지 못한다면서 필요하면 사다가 먹으라고까지 말하더라”며 “괜히 기분이 나빠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고 말했다. 같은 날 대화축제에 한창인 광양의 한 한우불고기 전문점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해당 식당에서는 쌈채소를 기본 제공하는데, 접시에는 청양고추가 단 1개 뿐이었다. 축제 기간이라 식당이 붐비니 ‘셀프바’를 이용하려고 적힌 안내문을 따라 셀프바에 갔지만, 청양고추는 아예 없었다. 이에 따라 손님들의 불만도 이어졌다. 손님들은

“셀프바에 왜 고추는 없느냐”고 따져 묻고, 식당 주인은 “고추 1박스(10kg)에 27만원이나 한다. 고추 가격이 너무 올라 원하는 만큼 드릴 수가 없다”고 해명하기에 바빴다. 앞서 지난 10일 장을 보기 위해 대형마트를 찾은 사람들도 치솟은 채소 가격에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광주시 서구의 한 대형마트 채소 판매대에서 만난 최모(여·40)씨는 대파를 손에 들고 가격을 여러 번 살폈다. 그는 “이것저것 필요한 식재료를 사다 보니 금방 10만원이 넘어섰다”며 “대파를 비롯해 채소류 가격이 너무 올라 장을 볼 엄두가 나질 않는다”고 푸념했다. 옆에서 무를 들고 한참을 고민하고 있던 유모(여·38)씨도 “어린 아들 먹일 국거리하고, 채소를 좀 사려고 하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게 올랐다”며 “공공요금과 대출금리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서민 식탁에 오를 식품 물가가 오르면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 겨울 매서운 한파가 몰아친 데다, 난방비가 크게 오르면서 시설재배를 하는 채소를 중심으로 출하량이 급감, 가격이 급등해 서민들의 가계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 서민들은 “사먹기 두렵다”고 입을 모으는 한편, 음식점 업주들도 음식 만드는데 필수 식재료로 꼽히는 고추와 대파, 양파 등의 가격상승으로 힘겨워하고 있다. 1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청양고추 10kg 도매가격은 12만1000원으로 지난해 5만5208원보다 무려 2.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년(6만8267)보다도 1.77배 높다. 양파 15kg 도매가격도 지난해 8808원보다 3.13배 비싼 2만7640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파 1kg 도매가격도 지난해 2065원보다 32.69% 오른 2740원이었다. 이처럼 채소 가격이 급등한 것은 지난 1월 하순 불어닥친 한파와 2월 중순 일조시간 감소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특히 시설채소인 청양고추 등은 생육이 늦어져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올랐다는 게 유통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일부 채소류의 가격이 높은 상황이나 3월 이후 기상 호조, 봄철 생산물



광주시 서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채소코너에서 무와 대파 등 가격을 살펴보고 있다.

량 본격 출하로 점차 안정세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농산물 수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불안 요인이 발생하면 비축물량 방출과 추가 재배면적 확보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할인 지원을 지속 추진하는 등 농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고병일(오른쪽) 광주은행장이 인재육성 장학기금을 후원한 뒤 김성 장학군수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장학기금 10,000,000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최근 장흥군청에서 고병일 광주은행장과 김성 장학군수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장학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달된 장학금은 장흥군 교육 발전 및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고병일 은행장은 “우리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들이 마음껏 꿈을 키우고 설계해나갈 수 있

도록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최근 강진군민장학재단과 광주 한마음장학재단에도 각각 2000만원씩 총 4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한 바 있으며, 이외에도 지역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유명 선글라스 만나세요. 광주신세계 직원들이 본관 3층에 문을 연 선글라스 편집매장에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해당 편집매장에는 토포드와 페라가모, 레이벤 등 유명 선글라스 브랜드가 입점했으며, 신규 오픈 기념으로 레이벤 최대 20%, 비비인웨스트우드 최대 30% 등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전남 상장사 시총 1조 이상 줄었다

한전 1조1491억 '증발' 투자자 매수대금은 늘어

지난달 광주·전남지역의 주식거래량은 급증한 반면,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은 1조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발표한 '2023년 2월 광주·전남 증시 동향'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 주식 투자자들의 지난달 주식 매수금액은 3조1006억원으로 전달(2조2035억원)보다 40.72%(8972억) 증가했다. 같은 기간 광주·전남 주식 매수 거래대금은 2조

817억원에서 3조1691억원으로 52.25%(1조874억원) 증가했다. 특히 코스닥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 코스닥 매수 거래대금은 1조7694억원으로 전달(1조464억원)보다 69.6%(7230억원) 증가했으며, 매도거래대금 또한 1조3533억원에서 1조 7438억원으로 68.43%(7085억) 늘어났다. 광주·전남 투자자들의 주식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전국에서 차지하는 매도 거래대금 비중은 전달보다 0.10%포인트 증가했고, 매수대금은 0.04%포인트 늘었다. 지난달 지역민들이 가장 많이 사고, 판 주식은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 최고가를 경신한

'포스코케미칼'이었다. 지역민들은 포스코케미칼 주식 617억원을 사들이고 610억원 팔아치웠다. 광주·전남 상장사의 39곳의 지난달 시가총액은 18조5634억원으로, 전달(19조8541억원)보다 6.5%(-1조2907억원) 줄었다. 특히 사상 최악의 경영 실적을 기록한 한국전력 시총이 1조1491억원 증발했다. 아울러 한전KPS도 시총이 990억원 줄었다. 반면 금호타이어는 시총이 전달 대비 416억원(4.57%) 증가해 광주·전남에서 시총 증가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광주신세계(260억원·10.11%)가 뒤를 이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경총, 김광호 콤비마케팅연구원장 초청 금요포럼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는 지난 10일 광주시 서구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 김광호 콤비마케팅연구원장을 초청해 1595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강사로 나선 김광호 원장은 '언더독의 역습, 그것이 역사다'를 강연했다. 그는 스포츠, 기업 경영, 국가의 흥망성쇠 등을 사례로 들면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모빌리티, 바이오헬스케어, 메타버스, AI가 주도할 뉴노멀 사회에서 기업이 언더독에서 탑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지역경제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경총의 금요조찬 포럼은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매주 금요일 오전 7

시 조찬 이후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진행된다. 경총 회원의 경우 무료로, 일반 참가자는 지역민 누구나 당회 1만원, 연 40만원의 참가비를 납부하면 포럼에 참여해 강연을 들을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내수 살린다” 이달 말 관광·서비스 지원안 발표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에 국내 관광과 서비스업 등 내수 소비를 촉진할 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광과 농수산, 소상공인 등 필요한 분야를 대상으로 스마트 지원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1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가 이달 말 발표를 목표로 내수 진작 대책을 준비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거의 모든 형태의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사실상 3년 만의 봄을 맞는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 맞는 내수를 진작하는 다양한 방안을 경제부처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제관광 재개 분위기에 맞춰 우선 외국인

의 한국 방문 관광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의 무가 해제된 데다 항공편도 증편되면서 중국인들의 해외 관광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들을 한국으로 유치할 각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급증하는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돌려 국내 소비를 진작하려는 시도다. 정부는 이런 측면에서 여행이나 숙박 등 관광산업과 관련한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방안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의 소비 진작을 위해 온누리 상품권을 특별판매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금을 활용해 온누리 상품권 발행량을 늘리거나 할인율을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통상 5~10%다. /연합뉴스

■ 로또복권 (제1058회)

| 당첨번호 | | 2등 보너스숫자 | |
|------|----------------|---------------|-----------|
| 11 | 23 25 30 32 40 | 42 | |
| 등위 | 당첨금(원) | 당첨자수 | |
| 1 | 6개 숫자일치 | 2,058,020,250 | 13 |
| 2 | 5개숫자+보너스숫자일치 | 74,317,398 | 60 |
| 3 | 5개 숫자일치 | 1,450,568 | 3,074 |
| 4 | 4개 숫자일치 | 50,000 | 152,446 |
| 5 | 3개 숫자일치 | 5,000 | 2,545,208 |